

##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sup>1)</sup>

— 자음 중복과 중자 탈락, 유사 자음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

김정훈\*

### 1. 들어가는 말

고정된 자음 본문의 케티브(Ketib)와 그에 대한 대안 읽기 난외표기인 케레(Qere)의 전통은 이른바 ‘마소라 학자들’(masoretes)<sup>2)</sup>이 본문에 모음 기호를 만들어 넣기 훨씬 이전, 기원후 2세기 무렵부터 이어온 이른바 초기 마소라 전통(proto-masoretic tradition)<sup>3)</sup>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마소라 본문의 필사본들에만 남아 있어서, 그 기원이나 본문비평에서 차지하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ihoze@hotmail.com](mailto:ihoze@hotmail.com).

- 1)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3070).
- 2) 일반적으로 ‘마소라 학자’는 6-8세기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에 모음 체계를 확립한 이들을 일컫는데, ‘마소라’(מסורה)라는 용어는 ‘에워싸다’의 뜻의 동사 ‘수르’(סור)에서 파생한 명사다. 기원후 2세기에 랍비 아키바(Akiba)는 “마소라는 토라를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이다”(Pirke Abot 3,14)라는 유명한 말로 이 당시의 전통을 잘 요약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56-57을 보라.
- 3) 초기 마소라 학자들이 남긴 전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C. D. Ginsburg, *Introduction to the Massoretico-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Bible*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897; repr.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66), 287-486; I. Yeivin,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Atlanta: Scholars Press, 1980), 44-64;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47-62; A. A. Fischer,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27-33; 페이지 H. 켈리 외,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37-54를 보라.

는 비중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다.<sup>4)</sup> 케티브/케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란의 핵심은, 필사본의 난외에 표기된 케레가 케티브에 대한 필사자들의 수정인지(correction theory),<sup>5)</sup> 고대 본문의 대조인지(collation theory),<sup>6)</sup> 아니면 이 둘의 조합인지<sup>7)</sup>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었다. 이런 논란 가운데서, 중세 필사자들보다 선행하는 본문 전통의 가능성은 자주 제안되지만, 정확하게 이 전통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그것이 헬레니즘 유대주의 시대인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구약성경 본문 역사 재구성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마소라 본문의 이 케티브/케레 전통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레닌그라드 사본(Codex Leningradensis B 19a; sig. L)의 사무엘하 본문에 표시된 94개의 케티브/케레 전통을 분석한 바 있다.<sup>8)</sup> 그 결과, 케티브/케레의 전통과 칠십인역의 다양한 본문 형태들과의 관계, 그리고 쿨란 본문과의 관계는 케티브/케레 전통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관계 규명을 통해서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헬레니즘 유대주의 시대 구약성경 본문의 다층성(multiplicity)과 유동성(flexibility) 이론을 증명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이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본 연구에서 필자는 먼저 사무엘하의 본문으로 제한하였던 연구의 폭을 구약성경 전체로 확장하였다. 이로써 무엇보다 필자가 주장한 바를 좀 더 많은 용례의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에서 보자면, 마소라 본문의 케티브/케레 전통을 연구하

4) 케티브/케레 전통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은, R. Gordis,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A Study of the Kethib-Qere*, 2nd ed.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1), 7-14; G. E. Weil, "Qere-Kethibh", *IDBS*, 721-723; W. S. Morrow, "Kethib and Qere", *ABD* IV, 24-30 등을 보라. 이 논란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선행 연구의 첫머리에서 요약해 놓았다.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2.Samuel", *ZAW* 123 (2011), 27-46, 특히 27-30. 또한 우리말로 요약된 것으로는, 안근조, "욥기 30:22하반절 '크티브'/'크레'의 선택과 문학적-수사학적 번역", 「성경원문연구」 40 (2017), 52-70, 특히 53-54를 보라.

5) C. D. Ginsburg, *Introduction*, 187-196; P. H. Kelly, D. S. Mynatt, and T. G Crawford, *The Masorah of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Introduction and Annotated Glossary* (Grand Rapids: Eerdmans, 1998), 156-157; E. Tov, *Textual Criticism*, 64 등.

6) 참조, H. M. Orlinsky, "The Origin of the Kethib-Qere System", G. W. Anderson, et al., eds., *Congress Volume Oxford 1959*, VT.S 7 (Leiden: Brill, 1960), 184-192.

7) 참조, R. Gordis,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29-54. 고디스(R. Gordis)는 여기서 "케티브-케레의 원래 종류"(the original classes of Kethib-Qere)인 영속적 케레나 완곡어법의 케레 등 대안적 읽기(alternative readings)와 자음 본문의 올바른 읽기 지침, 그리고 다른 필사본 이형들(variants)의 병합 단계를 구분한다.

8)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27-46.

9) *Ibid.*, 30, 43-45.

기 위해서는 본문 자료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우선 가장 널리 쓰이는 히브리어 성경(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의 주 본문 역할을 하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중심으로 한 마소라 전통의 난외주 소마소라(Masora Parva)에 기재된 케티브/케레 전통을 검토하였다. 그런 뒤에 제 각각 해당 구절의 고대 본문 증거들과 견주어 보았다. 고대 본문 증거들로는 우선 사해 두루마리 사본(Dead Sea Scrolls)에서 발견된 성경 본문들 가운데 해당 본문이 남아 있다면, 그것과 비교하고, 특히 본문 역사에서 케티브/케레의 전통이 차지하는 자리를 가늠하기 위해서 칠십인역 본문 전통의 추정 대본과 비교해 보았다는 말이다.<sup>10)</sup> 레닌그라드 사본(기원후 1008년 필사)이 제공하는 마소라 전통의 케티브/케레에 대한 필자의 데이터베이스는 1276번까지 이어졌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케티브/케레의 범주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필사 전통의 차이: 완전서법(scriptio plena)/불완전서법(scriptio defectiva), 묵음 알렘(quiescent Aleph), (필사 전통과 연관되는) 자음 바브(ב)/요드(י)의 차이 등.

② 자음 본문의 차이: 자음 중복<sup>11)</sup>(dittography), 중자 탈락(haplography), 유사 자음(graphic similarity), 음위 전환(metathesis), 낱말 구분(word division) 등.

케티브/케레 전통의 현상은 거의 반 정도(634개)가 위의 첫째 경우인 필사 전통의 차이이다. 이는 히브리어 발전과 관련한 현상인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한다.<sup>12)</sup>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은 둘째 경우인 자음 본문의 차이인데, 이 가운데서 음위 전환(metathesis)과 관련한 59개의 이형들(보기, 대상 27:29 שטרי K/שָׁרִי Q/Σατραις LXX)과 낱말 구분과 관련한 18개의 이형들(보기, 삼하 21:12 שם הפלשתים

10) 필자는 케티브/케레와 다른 본문 증거들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서, 케티브와 케레, 쿵란과 칠십인역 등을 일일이 평행 비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필자가 구약 전체 범위에서 진행한 분석과 용례 분류 결과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http://ihoze.pe.kr/ketib-qere-sorted.xlsb>). 이 자료는 현재 분석결과 발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필자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11) 일반적으로 이 낱말은 중복오사(重複誤寫)로 옮겨지지만, 이 번역어에 있는 가치 판단을 피하고자 우리는 ‘자음 중복’으로 옮긴다.

12) 이밖에도 편집자적 수정에 해당하는 보기가 369개가 있는데, 이들은 개별 문맥과 관련해서 주석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므로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의 아람어와 관련된 127개의 보기도 일단 논외로 한다. 필자가 위의 범주에 따라 분류한 전체 용례들의 본문 비교 데이터베이스는 위의 각주 10에서 언급한 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 있다.

K/םִשְׁתִּיבָהּ קִמָּץ Q/έκεῖ οἱ ἀλλόφυλλοι LXX)은 본 연구에 이어 다시 분석하여 그것들을 통한 현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나머지 77개의 경우, 곧 마소라 전통의 케티브/케레 가운데,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비평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자음 본문 차이, 특히 케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음 중복(dittography, 20개)과 중자 탈락(haplography, 18개), 유사 자음(graphic similarity, 39개)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케티브/케레의 이 전통이 칠십인역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견주어 봄으로써 이 두 전통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재고하고, 구약성경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새로운 가치 평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케티브/케레의 본문비평적 분석

### 2.1. 자음 중복(dittography)/중자 탈락(haplography)

본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필사의 차이는 같은 자음을 두 번 쓰거나 연이어 나오는 같은 자음 가운데 하나를 빠뜨리는 경우다. 이런 필사 차이의 판단은 어느 한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케티브와 케레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마소라 전통의 수정 제안인 케레를 기준으로 살핀다. 그렇지만 케티브 전통이 케레 전통보다 본문비평에서 우선적 가치 평가를 받는다면, 현상에 대한 판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 2.1.1. 케레 기준 케티브의 자음 중복(dittography)

케레를 기준으로 케티브가 같은 자음을 두 번 쓴 경우는 20번 등장한다. 우선 히브리어의 변화형이나 발음의 문제라 칠십인역으로 판정할 수 없거나 번역이 빠져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한다.<sup>13)</sup>

13) 출 37:8 קצוותו K(scr.err.)/קצוֹתָיו Q(-) LXX; 왕하 11:2 הממותחתים K(polal)/המוֹמְתִים Q(hophal)/τῶν θανατουμένων LXX; 겔 23:14 כשריים K(scr.err.)/כְּשָׂרִים Q/Χαλδαίων LXX; 대상 1:11 לוֹרִים K/לוֹרִים Q(-) LXX; 대상 14:10 פלשתיים K/פְּלִשְׁתִּים Q/τοὺς ἀλλοφύλους LXX; 대하 26:7 הערביים K(scr.err.)/העֲרָבִים Q/τοὺς Ἄραβας LXX; 대하 36:17 כשריים K(scr.err.)/כְּשָׂרִים Q/Χαλδαίων LXX.

## (1)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지지하는 경우

① 사무엘하 22:15 וַיִּהְיֶה K/וְיִהְיֶה Q/καὶ ἐξέστησεν αὐτούς LXX<sup>14)</sup>

이 구절에서는 케레에 비해 케티브에서 마지막 자음 ‘멤(מ)’이 한 번 더 쓰였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보자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3인칭 남성 복수 인칭 대명사이다. 케티브(“[여호와께서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는 문맥상 상반절(וַיִּפְּצֵם; “그분께서 그들을 흩으셨다”)과 평행을 이룰 뿐 아니라, 칠십인역 본문의 지지도 받는다(καὶ ἐξέστησεν αὐτούς).<sup>15)</sup> 여기서 분명한 것은 케티브의 전통이 필사 오류가 아니라, 케레와 병행하는 또 다른 본문 전통이며, 칠십인역의 본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 ② 열왕기하 7:13 כָּל-הַמּוֹן K/כָּל-הַמּוֹן Q/[πρὸς πᾶν] τὸ πλῆθος LXX

이 용례는 엘리야 이야기 가운데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멸망을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보고한 뒤에 요람의 신하가 왕에게 정탐꾼을 보내라는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 케티브와 케레 전통에서 문제가 되는 자음 본문 차이의 핵심은 케티브에 더 있는 정관사다. 현상만 보자면, 케티브는 케레에 한 번 나오는 이 자음 ‘헤(ה)’가 두 번 쓰였다. 이 낱말은 이어지는 절 대형 ‘이스라엘’과 이어져 연계 상태에 있어서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케레에서는 이 정관사를 뺄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칠십인역에는 정관사가 있어서 현상만 놓고 보자면 케티브를 지지한다.<sup>16)</sup> 사실 헬라어에서는 이런 경우 정관사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다.<sup>17)</sup> 따라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관사를 쓴 케티브는 필사 오류일 것이며, 칠십인역은 필사 오류인 히브리어 본문 전통의 영향을 받은 번역일 수 있다.

## ③ 열왕기하 22:5 בֵּית K/בֵּית Q/ἐν οἴκῳ LXX

열왕기하의 본문은 요시야가 개혁의 첫걸음으로 성전 수리를 위한 작업

14) 이 용례는 필자의 선행연구,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36에서도 다룬 바 있다.

15) 칠십인역 본문 전통에서 ‘αὐτούς’가 없는 필사본은 없으며, 동사는 몇몇 소문자 필사본에서 어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ἐξέστησαν a<sub>2</sub>; ἐξήχησεν βοc<sub>2</sub>e<sub>2</sub>; συνεταρξεν p<sup>b</sup>).

16) 일부 중세 필사본(bc<sub>2</sub>e<sub>2</sub>)은 의역의 전통을 보여준다(εν παντι).

17) 이에 대해 참조, Jong-Hoon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88, 98, 112.

자를 지명하는 장면에 있다. 여기서의 자음 ‘베트(ב)’가 케티브에서 두 번 쓰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맥에서 보자면, ‘야훼의 집에서 지명된 사람들’(הַמְפַקְרִים בְּבֵית יְהוָה)이며, 이는 후반절의 ‘야훼의 집에서 그 집의 낡은 곳을 수리할’(אֲשֶׁר בְּבֵית יְהוָה לְחַזֵּק בְּרֶגַע הַבַּיִת)과 평행을 이룬다. 이 관점에서 케레 전통이 전치사 없이 본문을 쓰는 것은 몇몇 중세 마소라 본문의 필사본으로 이어진 또 다른 본문 전통<sup>18)</sup>을 보여 준다고 여길 수 있겠다. 더욱이 이 경우 칠십인역은 예외의 이형 없이 케티브 전통을 지지하여 이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④ 이사야 23:12 כתיים K/כתיים Q/εἰς κτιλις LXX

여기서 문제가 되는 차이는 사이프러스 사람들,<sup>19)</sup> 또는 그리스 해안의 섬들<sup>20)</sup>을 가리키는 낱말 ‘깃담’의 표기다. 마소라 본문에서 이 낱말은 대부분 케레의 본문처럼 כתיים으로 표기된다(창 10:4; 민 24:24; 대상 1:7; 사 23:1; 렘 2:10; 단 11:30). 그런데 본문의 케티브는 자음 ‘요드’를 한 번 더 써서 כתיים으로 표기하였다. 이 현상만 놓고 보자면, 케티브는 필사 오류로 보인다. 그렇지만 케티브의 전통은 우선 쿰란 성경의 두 필사본에서 지지를 받는다(1QIsa<sup>a</sup> Col. XVIII, 17; 4QIsa<sup>c</sup> frags. 9 ii, 17).<sup>21)</sup> 그러니 이 전통은 적어도 쿰란 필사본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에스겔 27:6에서는 반대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곧 케티브에 ‘요드’가 한 번 쓰이고, 케레에 두 번 쓰였다. 칠십인역의 번역은 자음 ‘요드’가 두 번 쓰인 전통을 지지하는데, 우선 에스겔 용례의 경우에는 ‘τῶν κτιλις’로 음역하여서 ‘요드’가 들인 자음을 전제함이 분명하다. 우리 본문을 포함한 그 밖의 용례에서는 ‘κτιλις’가 기본형이 되는데, 이는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명사 변화형이 합쳐진 꼴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인 ‘κτιλι-’는 히브리어 ‘כתי-’ 부분을 음역하고, 나머지 복수형 어미 ‘-ליς’는 남성 복수형 ‘כתי-’를 헬라어 변화형으로 제각각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sup>22)</sup> 따라서 칠십인역은 케티브의 본문을

18) BHS의 해당 비평 각주를 보라.

19) 창 10:4; 민 24:24; 사 23:1, 12; 겔 27:6; 대상 1:7.

20) 렘 2:10; 단 11:30.

21) 쿰란 본문은 Eugene Ulrich,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Vol 2: Isaiah-Twelve Minor Prophets* (Leiden; Boston: Brill, 2013), 372, 494를 참조하라. 이 본문은 어코던스(Accordance Bible Software)의 ‘DSS Bible-Canonical Order’ 모듈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 신약성경과 칠십인역의 히브리어 음역과 합성에 대해서는,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8.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이하 ‘BDR’), §39-40을 보라.

그 대본으로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케티브와 케레 두 표기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사 오류가 아니라, 두 전통이 모두 한때 공존하던 고대 본문 전통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예레미야 52:11 בַּיִת K/בֵּית Q/εἰς οἰκίαν LXX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된 뒤 시드기야의 운명을 전하는 구절에 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죽는 날까지 투옥했다는 대목이다. 문맥상 전치사가 있는 케티브 본문 ‘그리고 그가 그를 감옥에 (בְּבַיִת הַפְּקֻדָּה) 가두었다’가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용례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사실상 위의 것과 같다. 다만 칠십인역에서는 앞선 경우의 전치사 ‘עַן’과 칠십인역과 신약성경의 헬레니즘 헬라어에서 가끔 교체 사용되기도 했던 전치사 ‘εἰς’를 썼을 뿐,<sup>23)</sup> 그 대본(Vorlage)이 케티브와 같았을 것은 분명하다.

⑥ 시편 105[104]:28 דְּבָרָיו K/דְּבָרָיו Q/τοὺς λόγους αὐτοῦ LXX

여기서 케티브에는 케레와 달리 자음 ‘바브’가 두 번 쓰였는데, 이는 사실상 필사 오류다. 이에 따라 케레는 본문 수정을 제안한다. 그런데 칠십인역의 번역은 잘못 필사된 케티브의 본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칠십인역에서 명사는 복수 형태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케티브의 첫째 ‘바브’를 칠십인역의 번역자는 아마도 ‘요드’로 보고 ‘드바라브(דְּבָרָיו, 그의 말씀들)’로 이해하여 복수형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원전 1 세기에 이 두 자음은 쉽사리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필사되었다.<sup>24)</sup> 그러므로 칠십인역의 대본은 케티브였다고 볼 수 있다.

(2) 칠십인역이 케레를 지지하는 경우

칠십인역이 케레와 일치하는 다음의 세 경우는 모두 케티브가 명백한 필사 오류다.

책	장	절	Ketib	Qere	LXX
출	39	4	קְצוּתוֹ	קְצוּתָיו	τῶν μερῶν [36:11]
겔	29	4	חַיִּים	חַיִּים	παγίδας
대하	5	12	מְחַצְרִים	מְחַצְרִים	σαλπίζοντες

23)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BDR, §218을 보라.

24)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38-39를 보라.

### 2.1.2. 케레 기준 케티브의 중자 탈락(haplography)

앞서 우리가 다룬 경우와 반대로 케레 기준에서 케티브가 자음 하나를 덜 쓴 경우는 구약성경에서 18번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칠십인역의 본문이 다른 대본을 전제하거나,<sup>25)</sup> 해당 번역어가 없는 경우,<sup>26)</sup> 또는 케티브가 명백한 필사 오류인 경우는<sup>27)</sup> 논의에서 제외한다.

(1) 에스겔 36:13, 14 וְגוֹיֶיךָ K/וְגוֹיֶיךָ֑ Q/13절 τοῦ ἔθνους σου LXX(=Q), 14절 καὶ τὸ ἔθνος σου LXX(=K)

먼저 이 두 용례에서 자음 본문의 현상만 놓고 보자면, 케티브가 자음 ‘요드’를 한 번 쓰는 데 비해, 케레는 두 번 쓴다. 문법의 관점에서는 케티브가 명사 ‘백성’(‘고이[גוי]’)의 단수형에 2인칭 여성 단수 인칭 대명사를 쓰며, 케레는 복수형 명사를 제안한다. 그러니 케티브는 필사 오류가 아니다. 그리고 본문 자체의 문맥에서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신탁이므로, 단수가 더 적합해 보인다.<sup>28)</sup> 하지만 케레의 전통이 35:10절에서 말하는 두 민족을 전제한다는 견해도 눈여겨볼 만하다.<sup>29)</sup> 그런데 칠십인역은 필사본 전통의 예외 없이 13절에서는 케레를 지지하고, 14절에서는 케티브를 지지한다. 이 경우 칠십인역이나 그 대본은 두 표현을 다른 대상으로 분리하여 이해했을 수 있다. 어쨌거나 세 전통 모두 문법에서나 문맥에서나 우열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잠정적으로는 적어도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전통에서는 세 전통이 공존하던 때가 있었으며, 칠십인역 본문과 케티브/케레 전통은 이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에스겔 8:6 מָה K/מָה־ Q/τί οὗτοι LXX(=Q)

이 용례에서는 자음 ‘헤(ה)’가 케티브에서는 한 번만, 케레에서는 두 번 쓰였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견해대로<sup>30)</sup> 의문사의 발달 과정에서 모음 문

25) 샛 4:11 בַּצְעֵנִים K/בַּצְעֵנִים֑ Q/πλεονεκτούντων LXX(<בַּצְעֵיִם[?]). 칠십인역 번역 대본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E. Hatch and H.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Including the Apocryphal Book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1142a (이하 ‘HR’)를 보라.

26) 삼하 18:18 בְּהַיּוֹ K/בְּהַיּוֹ֑ Q/(-) LXX; 겔 36:15 וְגוֹיֶיךָ K/וְגוֹיֶיךָ֑ Q/(-) LXX.

27) 예 4:7; 8:1, 7, 13; 9:15, 18 יְהוּדִים K/יְהוּדִים֑ Q/Ιουδαίοι, 또는 -οις, 또는 -ους LXX.

28) 참조, W. Zimmerli, *Ezekiel 25-48*, BKAT 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856.

29) 참조, L. C. Allen,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169.



자 ‘헤(ה)’가 나중에 형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용례로 볼 수 있다. 이사야 3:15의 마찬가지로 경우(מַלְכִים K/מַלְכִים Q/τί ὑμεῖς LXX)에서 보듯, 케티브는 더 오랜 의문사 형태가 남아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칠십인역은 좀 더 발전한 형태의 의문사인 케레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에스겔 27:6 כְּתִים K/כְּתִים Q/τῶν Κετιω LXX(=Q)

이 용례에 대한 논의는 위의 2.1.1.(1)-④를 보라.

## 2.2. 유사 자음(graphic similarity)

구약성경에서 39번 찾아볼 수 있는 케티브와 케레의 차이는 비슷한 모양의 자음에서 비롯한다. 이 가운데 칠십인역 본문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경우거나,<sup>31)</sup> 해당 번역어가 없는 경우,<sup>32)</sup> 그리고 다르게 번역한 경우<sup>33)</sup>들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우리는 여기서 유사 자음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칠십인역이 케티브와 케레 가운데 어느 전통을 지지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2.1. ‘ב’와 ‘בֿ’의 차이

이 두 자음은 정방향 히브리어 문자에서 모양이 비슷하여 전통적으로 자주 혼동되곤 했다.<sup>34)</sup> 케티브/케레 전통에서 이 경우가 비교적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칠십인역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지지하는 경우

① 사무엘하 5:24 בַּשְּׂמֶרֶךְ K/בַּשְּׂמֶרֶךְ Q/ἐν τῷ ἀκουσαί σε LXX

여기서는 부정사 연계형과 함께 쓰여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בֿ와 בֿ의

30) 이에 대해, W. Gesenius, bearb. von E. Kautsch, *Hebräische Grammatik*, 28. Aufl. (Hildesheim; Zürich; New York: Georg Olms, 1995), §37c (이하 GK); P. 주용, T. 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37cN (이하 JM);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18.1eN을 보라.

31) 왕하 24:14 עֶשְׂרָה K/עֶשְׂרָה Q/δέκα LXX; 전 12:6 יְרַחֵק K/יְרַחֵק Q/ἀνατραπή LXX; 아 1:17 רַחֵטְנוּ K/רַחֵטְנוּ Q/φατινώματα ἡμῶν LXX.

32) 수 6:5 בַּשְּׂמֶרֶךְ K/בַּשְּׂמֶרֶךְ Q/(-) LXX; 잠 20:16 נִכְרָהָהּ K/נִכְרָהָהּ Q/(-) LXX; 스 8:14 וְזָכַר K/וְזָכַר Q/(-) LXX.

33) 수 3:16 בָּאֲדָם K/בָּאֲדָם Q/σφοδρῶς LXX; 왕하 12:10[9] בִּימִין K/בִּימִין Q/παρὰ ἡμῶν LXX; 사 30:32 בָּה K/בָּה Q/[αὐτὸν] LXX; 잠 19:19 גְּדֹל־חֲמָה K/גְּדֹל־חֲמָה Q/κακόφρων ἀνήρ LXX; 예 3:4 בְּאֲמָרִים K/בְּאֲמָרִים Q/ἐλάλουν LXX; 단 11:18 וַיִּשָּׁב K/וַיִּשָּׁב Q/καὶ δώσει LXX.

34) 히브리어 성경 필사전통에서 이 두 자음 사이의 필사 오류 보기는, E. Tov, *Textual Criticism*, 231을 보라.

번역어가 문제다. 직관적으로 볼 때, 칠십인역의 번역은 케티브를 지지하는 듯하다. 사무엘하 본문에서 두 전치사가 부정사 연계형과 함께 쓰인 경우로 범위를 확대해 보면, 우리가 다루는 본문을 제외하면, 전치사  $\text{בְּ}$ 는 27번 쓰이고,  $\text{עַל}$ 는 10번 쓰인다.  $\text{בְּ}$ 와 부정사 연계형이 함께 쓰인 경우, 20번의 용례에서 본문의 케티브처럼 ‘ $\text{עַל} + \text{τῶ}$  + 부정사’로 번역된다.<sup>35)</sup> 반면에 이 본문을 부사나 정동사를 써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옮긴 경우는 3번밖에 없다.<sup>36)</sup> 그리고 분사구문으로 옮긴 것은 5번 등장하는데,<sup>37)</sup> 이 용례들은 모두 주절의 주어와 이 구문의 주어가 다를 때 헬라어에서 주로 쓰는 이른바 ‘독립 속격’(genitivus absolutus)이다.<sup>38)</sup>

이렇게 보면, 본문의 칠십인역은 케티브의 전통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실은 이른바 ‘카이게 본문’(Kaige Section)<sup>39)</sup>인 11장 이후 이 본문과, 그와 경쟁 본문 형태였던 ‘안디옥 본문’(The Antiochene Text)의 번역을 보면 명확해진다.<sup>40)</sup> 안디옥 본문은 대부분 카이게 개정본과 마찬가지로 부정사 연계형과 함께 쓰인 전치사  $\text{בְּ}$ 를 히브리어 본문에 충실하게 ‘ $\text{עַל} + \text{τῶ} + \text{부정사}$ ’로 옮긴다. 다만 다른 전치사( $\text{עַל} + \text{τῶ} + \text{부정사}$ )와 더불어 쓰인 곳 1번(15:5), 부사 표현으로 바꾼 곳이 2번<sup>41)</sup>일 뿐이다. 따라서, 부정사 연계형과 함께 쓰인 전치사  $\text{בְּ}$ 의 칠십인역 번역은 ‘ $\text{עַל} + \text{τῶ} + \text{부정사}$ ’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무엘하에서  $\text{בְּ}$ 와 부정사 연계형이 함께 쓰인 10번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ext{וְעַד}$ (3:34; 4:10; 13:28),  $\text{καθὼς}$ (6:20), 또는  $\text{ἡνίκα}$ (13:36; 17:27)와 더불어 쓰인 6번의 경우는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직

35) 삼하 1:2; 3:6; 4:4(×2); 5:4; 8:13; 11:16; 12:18; 14:26; 15:5, 8, 12; 16:7; 19:1, 4, 29; 21:2; 23:9; 24:17.

36) 삼하 2:10  $\text{בְּמַלְכוֹתָיו}$  MT/ὅτε ἐβασίλευσεν LXX; 7:6  $\text{בְּיָמָיו}$  MT/ἀνήγαγον LXX; 7:14  $\text{בְּיָמָיו}$  MT/καὶ ἂν ἔλθῃ LXX.

37) 삼하 3:13  $\text{בְּבָרָכָתְךָ}$  MT/παραγινόμενου σου LXX; 5:2  $\text{בְּיָמָיו}$  MT/ὄντος LXX; 8:3  $\text{בְּבָרָכָתְךָ}$  MT/πορευομένου αὐτοῦ LXX; 18:5  $\text{בְּיָמָיו}$  MT/ἐντελλομένου LXX; 19:19  $\text{בְּיָמָיו}$  MT/διαβαίνοντος αὐτοῦ LXX.

38) 케티브/케레 전통에서 이런 경우는 삼상 11:9에 나타난다( $\text{בְּחַמְסָתְךָ}$  K/ $\text{בְּחַמְסָתְךָ}$  Q/διαθερμάναντος LXX). 이 용례는 사실상 칠십인역이 어느 전통을 지지하는지 판가름할 수 없다.

39) 일반적으로 직역 전통 개정본으로 여기는 ‘카이게 개정본’은 바티칸 사본을 바탕으로 하는 사무엘하의 칠십인역 본문에서는 11:2에서부터 남아 있는 것으로 여긴다. 사무엘서의 본문 형태와 역사에 대한 개괄로는, Jong-Hoon Kim, *Textformen*, 4-32; 또한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128-141을 보라.

40) 사무엘서의 안디옥 본문은 다음의 편집본을 참조할 수 있다. N. Fernández-Marcos and J. Busto-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Madrid: Instituto de Filología. C.S.I.C., 1989).

41) 삼하 12:18  $\text{עַל} + \text{τῶ} + \text{ἔτι}$  KR/ἔτι Ant; 15:8  $\text{עַל} + \text{τῶ} + \text{οἰκεῖν} + \text{με}$  KR/ὅτε ἐαθήμην Ant.

역이다. 이는 아래에서 칠십인역이 케레를 지지하는 경우의 세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4번의 용례(5:24; 11:19; 15:10; 17:9)에서는 칠십인역이 𐤒의 경우처럼 ‘ἐν τῷ + 부정사’로 옮긴다. 기원후 8세기의 필사본(Codex Venetus; N)만 마소라 본문을 반영하여 ὡς ἔαν으로 옮기는 15:10의 경우 말고 나머지 세 경우에는 모든 필사본에 특별한 이형이 없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한다. 곧 이 세 경우에 히브리어 대본이 마소라 본문과 달리 𐤒였거나, 두 전치사가 모두 ‘ἐν τῷ + 부정사’로 옮겨지는 데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본문에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칠십인역이 직관적으로서는 케티브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지만, 케레를 옮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② 역대하 33:16 𐤒𐤓 K/𐤒𐤓 Q/καὶ κατώρθωσεν LXX

본문은 역대기에만 있는 므낫세 개혁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역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는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여기서 본문은 므낫세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한 뒤에 야훼의 제단을 보수하는 장면의 첫 낱말에서 케티브와 케레가 다른 본문을 전한다. 먼저 케티브는 동사 𐤒𐤓의 히필 형을 쓰고, 케레는 𐤒𐤓의 칼 형을 쓴다. 케레의 제안은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케티브의 경우에는 용례의 관찰이 필요한데, 구약성경에서 이 낱말은 성전 보수나 재건의 문맥에서 더러 쓰이곤 한다는 점은 흥미롭다(스 3:3; 대하 29:16; 35:20).<sup>42)</sup> 그러나 비슷한 모양의 자음 𐤒와 𐤓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 이 용례는 케티브의 필사 오류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점은 칠십인역의 번역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칠십인역의 번역어로 쓰인 κατωρθῶ는 우리말로 하자면, ‘잘 준비하다, 잘 처리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등의 뜻이다.<sup>43)</sup> 칠십인역에서 이 낱말은 27번 쓰이는데,<sup>44)</sup> 12번이 𐤒𐤓의 번역어로 쓰인다. 하지만 𐤒𐤓의 번역어로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칠십인역의 대본은 분명히 케티브와 같았을 것이다. 케레의 전통은 아마도 좀 더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의 영향을 받았

42) 이에 대해,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 (Heidelberg: Springer, 2013), 533을 보라.

43) 참조, 발터 바우어 외, 『바우어 헬라어 사전.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헬라어-한국어 사전』, 이정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811.

44) 구체적인 용례들은 HR, 756b를 보라.

을 것이다.

③ 열왕기하 3:24 ויבו K/ויבו Q/καὶ εἰσήλθον LXX (Ant: καὶ παραγινόνται)

본문은 이스라엘과 모압 왕 메사 사이의 전쟁 이야기 막바지의 장면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압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이 동사도 케티브와 케레는 자음 ב와 כ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케티브는 동사 ויבו를 전제하는데, 자음 ו이 빠져 있어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묵음인 이 자음은 자주 빠진 채 쓰인다(가령, 왕상 12:12 ויבו K/ויבו Q).<sup>45)</sup> 그러므로 케티브를 단순한 필사 오류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케레는 동사 ויבו의 히필 형태이다. 칠십인역 전통은 바티칸 사본에 남아 있는 카이게 개정본은 물론 안디옥 본문 모두 케레가 아닌 케티브 전통을 뒷받침해 준다.

(2) 칠십인역이 케레를 지지하는 경우

① 위에서 논의한 바처럼 부정사 연계형과 함께 쓰여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만드는 두 전치사 כ와 כֹּ는 다음의 세 경우에 ὡς와 정동사로 번역하여 케레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여호수아 4:18 בעלות K/בעלות Q/ὡς ἐξέβησαν LXX
- 사사기 19:25 בעלות K/בעלות Q/ὡς ἀνέβη LXX
- 사무엘상 11:6 בשמעו K/בשמעו Q/ὡς ἤκουσεν LXX

② 욥기 21:13 יבלו K/יכלו Q/συνετέλεσαν LXX

본문은 악인들의 현세적 득세와 내세적 종말을 대조하는 욥의 발언 가운데 있다. 악인들이 현세에서는 행복하게(בטוב/ἐν ἀγαθοῖς) ‘지낼 것’(K)/‘끝낼 것’(Q/LXX)이지만, 죽으면 곧장 스올로 내려가 버릴 것이라는 진술이다. 여기서 칠십인역 본문은 케레를 지지한다. 하지만 케티브의 문장도 의미가 있다. 케레와 칠십인역이 죽음의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케티브는 이 구절 앞의 문맥에 맞게 현세적으로 득세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악인들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sup>46)</sup> 두 전통 가운데 어느 하나는 비

45) 이른바 ו"ב 동사에서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GK §23 f, §74 k를 보라.

46) 이와 비슷한 견해는, David J. A. Clines, *Job 21-37*, WBC 18A (Grand Rapids: Zondervan,

슷한 자음 때문에 필사 오류를 겪은 결과이겠지만, 어느 것이 더 본문비평적으로 우월할지는 내적 기준으로 판가름하기 어렵다.

### ③ 잠언 21:29 יָכִין K/יָבִין Q/συνίει LXX

본문은 반의적 평행법의 하반절이다. 곧 상반절에서 악한 사람(‘이쉬 라샤[עֲשֵׂה רָשָׁע]’)이 그 얼굴을 ‘굳게 하는’(‘헤에즈[עָזָה]’) 모습에 대하여, 올곧은 이가 자기 삶의 길을 어떻게 하는지를 표현한다. 케티브가 ‘굳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케레는 ‘분별할 것이다’라고 표현한다. 케티브의 전통은 전반절에서 쓰인 동사의 유의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표현은 표면적으로 자음 כ와 נ의 차이에서 비롯했다. 그리고 두 표현 모두 저마다 의미가 있다. 다만 케티브의 경우 좀 더 단호한 대조를 이룬다.<sup>47)</sup> 칠십인역의 본문은 이 구절에서, 상반절의 동사는 ἀναιδώς ὑφίσταται(뻔뻔하게 대항한다)로, 하반절에서 문제의 동사는 συνίει(분별한다)로 옮겨졌다. 상반절은 의역임이 분명하며, 하반절은 케레 전통의 직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절의 의역 관점에서 볼 때, 하반절의 번역어가 케티브 전통의 의역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④ 사무엘하 12:31 בַּמֶּלֶךְ K/בְּמֶלֶךְ Q/διὰ τοῦ πλιθείου LXX

다윗이 암몬의 랍바를 점령한 뒤 암몬 사람들을 강제노동자로 삼았다는 보도의 한 부분이다. 다윗은 이들을 “툽질과 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개역개정』)를 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본문은 마지막 부분이다. 케레의 בַּמֶּלֶךְ은 ‘벽돌’을 뜻하는 ‘르베나’(רִבְנָה)에서 온 명사로 벽돌을 굽는 틀을 일컫는다. 칠십인역은 이를 ‘플린테이온’(πλιθείον, 벽돌 굽는 일)으로 옮겨졌다. 이 경우 케티브는 명백하게 필사 오류로 보인다.

#### 2.2.2. כ와 נ의 차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두 자음도 종종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 자음에 든다.<sup>48)</sup> 케티브/케레 전통에서는 4번 등장하는데, 칠십인역은 2번은 케티브,

2006), 508을 보라.

47) 이에 대해 참조, Michael V. Fox, *Proverbs 10-31*, AYB 18B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575.

48) 히브리어 성경 필사 전통에서 이 두 자음 사이의 필사 오류 보기는, E. Tov, *Textual Criticism*, 230-231을 보라.

2번은 케레를 지지한다.

(1)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지지하는 경우

① 여호수아 24:15 כַּעֲבָרָה K/מַעְבָּרָה Q/ἐν τῷ πέραν LXX

이 용례에서는 비슷한 모양의 전치사와 관련하여 케티브와 케레가 차이를 보인다. 곧 כַּעֲבָרָה와 함께 쓰인 전치사 ‘브(בְּ, ~안에)’와 ‘민(מִן, ~에서부터)’의 차이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요단강 동편을 일컫는다. 두 전통 모두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쓰이는데,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브에베르(כַּעֲבָרָה)’는 14번이 더 쓰이며, ‘메에베르(מַעְבָּרָה)’도 5번이 더 쓰인다. 칠십인역 여호수아에서 כַּעֲבָרָה는 히브리어의 요소를 살려서 “ἐν τῷ πέρα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1:15[A; εἰς … B]; 9:1; 12:7; 13:8; 22:4; 24:14), 부사로 쓰이는 “πέραν”으로 옮겨지기도 한다(2:10; 5:1; 9:10; 12:1; 24:2, 8).<sup>49)</sup> 또한 מַעְבָּרָה도 두 번역 용어가 제각각 다 쓰이며(13:32//17:5; 18:7), 이 표현의 고유한 요소를 반영한 번역으로는 “ἀπὸ τοῦ πέραν”(14:3), 또는 “ἐκ τοῦ πέραν”(24:3)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정적으로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지지한다고 여길 수 있다.

② 열왕기하 5:12 אַבְנֵי חַמָּה K/אַבְנֵי חַמָּה Q/Ἀβανᾶ LXX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 본문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화를 내며 언급하는 다메섹의 두 강 이름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케티브와 칠십인역, 페쉬타와 불가타는 ‘아마나’로 일컫는데 비해, 케레와 타르굼은 ‘아마나’라고 일컫는다.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원래의 것인지를 판가름하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sup>50)</sup> 어쨌거나 이 경우 케티브는 필사 오류로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칠십인역의 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9) 그밖에는 1:14 (-); 7:7 παρὰ.

50) 케티브의 전통은 다마스쿠스 남부의 와디 아바이(‘A‘waj)와 동일시하려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참조, T. R. Hobbs, *2 Kings*, WBC 13 (Waco: Word Books, 1985), 65. 한편, 케레의 전통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왕궁과 신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아마나(아카드어, Ammananu) 산에서 백향목과 대리석을 들여왔다는 췌기문자 기록들을 들이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참조, M. Cogan and H. Tadmor, *II Kings*, AYB 11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65.

## (2) 칠십인역이 케레를 지지하는 경우

## ① 여호수아 22:7 מַעְבָּר K/מַעְבָּר Q/έν τῷ πέραν LXX

이 용례는 위의 (1)-①과 반대가 되는 경우로 여기서도 잠정적으로 칠십인역은 케레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다. 결국, 두 전통은 공존하며 교체되어 사용할 수 있었던 표현으로 보인다.

## ② 열왕기하 23:33 מִמְלֶכֶךְ K/מִמְלֶכֶךְ Q/τοῦ μὴ βασιλεύειν LXX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가 사로잡아가서 하맛 땅 립나에 가두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대목이다. 이 표현을 케티브에서는 ‘다스리는 가운데’로 표현한 데 비해, 케레에서는 ‘왕이 되지 못하도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는 칠십인역의 지지를 받는다. 케레가 더 뜻이 잘 통하기는 하지만, 이 표현도 그리 세련되지는 않다.<sup>51)</sup>

## 2.2.3. ㄱ와 ㄴ

매우 비슷한 이 두 자음 사이에서 생겨나는 본문의 차이는 마소라 전통의 필사본들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sup>52)</sup> 칠십인역을 통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케티브/케레 전통에서는 3번의 경우가 있다.

## (1)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지지하는 경우

## ① 예레미야 2:20 אֶעֱבֹר K/אֶעֱבֹר Q/δουλεύσω LXX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신탁에 들어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는 이스라엘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의 신탁에 있다. 여기서 케티브의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부정어와 더불어 ‘내가 섬기지 않을 것이다’가 되어 독백 형식으로 거역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며, 칠십인역도 이를 직역한다. 그런데 케레는 얼핏 보기에는 어색한 표현이지만,<sup>53)</sup> ‘내가 거스르지 않

51) T. R. Hobbs, *2 Kings*, 331.

52) 히브리어 성경 필사 전통에서 이 두 자음 사이의 필사오류 보기는, E. Tov, *Textual Criticism*, 229를 보라.

53) 케레의 이 전통을 마소라 학자들의 오류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조, P. C. Craigie, et al., *Jeremiah 1-25*, WBC 26 (Nashville: Thomas Nelson, 1991), 35.

겠습니다’라는 뜻이 되어,<sup>54)</sup> 발언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강조된다. 케레의 전통은 타르쿰이 지지한다.

② 예레미야 31:40[LXX 38:40] הַשְׂרָמוֹת K/הַשְׂרָמוֹת Q/ασαρημωθ LXX

새 언약과 관련한 예레미야의 구원 신탁에서 야훼의 거룩함이 미치는 범위를 언급하는 대목에 있는 이 용례는 흥미롭다. 사실 케티브는 ‘밭, 들’을 뜻하는 הַשְׂרָמוֹת(신 32:32; 왕하 23:4; 사 16:8; 합 3:17)의 복수형을 쓴 케레의 필사 오류다.<sup>55)</sup> 그런데 케티브의 필사 오류가 칠십인역의 번역 전통에 그대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역 번역자는 이 필사 오류의 전통에 맞닥뜨려 낱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음역하였다. 다만 헉사플라 전통의 필사본들에서는 τὴν κοιλάδα(골짜기, 산들로 둘러싸인 평지)라는 수정 본문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칠십인역에서 이 낱말은 주로 ‘에메크(עֵמֶק)’의 번역어로 쓰인다.<sup>56)</sup> 명확한 것은 케티브의 필사 오류는 칠십인역의 시대에는 케레의 전통과 공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2) 칠십인역이 케레를 지지하는 경우

① 열왕기하 16:6 וְאֲדוֹמִים K/וְאֲדוֹמִים Q/καὶ Ἰδομαῖοι LXX

본문은 이른바 시리아-에브라임 형제 전쟁 보도 가운데 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을 중심으로 한, 반-아시리아 연맹 동참을 거부하고, 아시리아 디글랏빌레셀 3세의 봉신이 된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연맹군의 침공 장면이다. 르신이 이스라엘의 남부지역 엘랏(אֵילָת)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을 내쫓은 뒤에 대신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정체가 본문 케티브/케레의 쟁점이다. 케티브는 아람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보도하는 반면에, 케레는 그 지역의 에돔 사람들이라고 수정 제안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칠십인역의 지지를 받는다. 케레의 수정 제안은 역대하 28:17절의 평행본문에서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다는 보도와 일관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케티브가 필사 오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54) 히브리어 동사 ‘עָבַר’가 이런 뜻으로 쓰인 용례는 수 7:15; 왕하 18:12; 렘 34:18; 호 6:7; 대하 24:20; 예 9:26 등을 보라.

55) 참조, Jack R. Lundbom, *Jeremiah 21-36*, AB 21B (New York: Doubleday, 2004), 493.

56) HR, 772c-773a.



2.2.4.  $\eta$ 와  $\pi$ 

칠십인역의 번역으로 판별할 수 있는 케티브/케레 전통에서 이 두 자음 사이의 차이 3번 가운데, 1번은 칠십인역이 두 전통을 다 보여주며, 나머지 2번은 케레의 전통을 지지한다.

(1) 칠십인역에 두 전통이 공존하는 경우: 다니엘 9:24  $\text{ולקחתם K/ולקחתם Q/καὶ τοῦ σφραγίσαι LXX-θ'(=K)/σπανίσαι LXX-ο'(=Q)$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있으며, 바로 앞 문장과 동의적 평행법을 이루고 있다. 바로 앞 문장은 ‘배역이 끝나도록’(לְכַלּוֹת הַפְּשָׁע)으로 쓴다. 이를 이어받은 본문의 문장에서 부정사의 주어는 ‘죄’(חַטָּאת K/חַטָּאת Q)이다. 이에 대한 동사가 케티브/케레 전통은 자음  $\eta$ 와  $\pi$ 에서 갈라진다. 케티브는 ‘봉인하다’는 뜻의 동사  $\text{קָח}$ 의 칼 부정사형이다. 반면에 케레는 ‘끝나다’는 뜻의 동사  $\text{סָפַד}$ 의 히필 부정사형이다. 케티브는 앞 문장에 대한 의미상의 결과로 죄 용서를 뜻한다면, 케레는 앞 문장과 동의어를 써서 사실상 같은 표현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번역 형태가 전해오는 다니엘서의 칠십인역<sup>57)</sup>에서 케티브와 케레가 제각각 전해온다는 사실이다. 곧 번역어인 헬라어 중심의 의역을 드러내는  $\theta'$ -번역은 케레를 지지하며, 원어 중심의 직역 경향성을 내보이는  $\theta'$ -번역은 케티브를 지지한다.<sup>58)</sup> 케티브를 직역한  $\theta'$ -번역어 ‘σφραγίζω’가 칠십인역에서 배타적으로  $\text{סָפַד}$ 의 번역어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sup>59)</sup>  $\theta'$ -번역어인 ‘σπανίζω’(드물다)는 칠십인역에서 4번 쓰이는데, 욥기 14장 11절에서 ‘없어지다’라는 뜻의  $\text{אָזַל}$ 에 대한 번역어로 한 번 쓰였을 뿐, 나머지는 히브리어 대본이 없거나(유딧 11:12) 의역으로 여길 수 있다(왕하 14:26; 단 9:24).<sup>60)</sup>

(2) 칠십인역이 케레를 지지하는 경우

① 사무엘하 13:37  $\text{עִמְיָהוּד K/עִמְיָהוּד Q/Eμίουδ LXX}$

57) 다니엘서 본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116-118을 참조하라.

58) 참조, M. Karrer and 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zum griechischen Alten Testament. Bd. II. Psalmen bis Dani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3035.

59) HR, 1327a-b.

60) HR, 1281c.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제인 암논을 살해하고 도피하여 간 곳을 언급하는 대목에 등장한다. 압살롬은 외조부인 달매(삼하 3:3)가 있는 그술로 도망했는데, 그 달매의 이름이 본문에서 ‘아미후르’(K) 또는 ‘아미후드’(Q)의 아들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유사 자음에서 비롯한 차이점들이 있다. 먼저 마지막 자음이 케티브는 ‘레쉬’인데, 케레는 ‘달렛’이다.<sup>61)</sup> 둘째로는 케티브가 셋째 음절의 첫 자음을 ‘헤트’로 쓴 반면에, 케레는 ‘헤’로 쓴다. 칠십인역은 두 차이 모두에서 케레를 따른다. 달매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견줄 수 있는 본문이 없고, 또한 케레와 같은 이름이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칠십인역도 케레와 같은 전통에서 음역하지만(민 1:10; 2:18; 7:48, 53; 10:22; 34:20, 28; 대상 7:26; 9:4), ‘흰 세마포’를 뜻하는 케티브 뒷부분 이름의 요소(חורר; Ουρ/Ωρ)도 구약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출 17:10; 31:2; 민 31:8; 수 13:21; 대상 2:19; 대하 1:5; 느 3:9 등). 그러므로 케티브의 전통을 단순히 필사 오류로 판단할 수는 없다.

② 잠언 20:21[9b] מְבַחֵלֶת K/מְבַחֵלֶת Q/ἐπισπουδαζομένη LXX

케레는 ‘서두르다’를 뜻하는 동사 בָּהַל의 푸알 분사형이다. ‘열심을 내다’를 뜻하는 동사 ἐπισπουδάζω의 현재 수동태 분사형인 칠십인역은 케레를 반영한다. 이 경우는 케티브가 필사 오류로 보인다.

2.2.5. 그 밖의 경우

(1) וְנוּ ׀: 여호수아 5:1 עַרְעֲבָרָם K/עַרְעֲבָרָם Q/ἐν τῷ διαβαίνειν αὐτούς LXX(=Q)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길갈에 열두 돌로 기념비를 세운 뒤의 장면에서 있다. 본문은 정방형 히브리어 문자에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sup>62)</sup> 핵심적인 문제는 부정사 연계형의 목적어로 쓰인 대명접미어가 케티브대로 1인칭 복수인지, 아니면 케레대로 3인칭 복수인지다. 칠십인역은 여기서 케레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필사 오류의 여부와 연관되지 않으며, 본문의 자리에 대한 이해와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이 본

61) 『개역개정』은 케티브의 전통에 따라 ‘암미홀’로 음역을 하였으며, 『공동번역』, 『새번역』, 가톨릭 『성경』은 케레의 전통에 따라 ‘암미후’로 음역을 하였다.

62) 이런 관찰은,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79를 보라.

문은 4:21에서 시작하는 신앙고백 형태의 진술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왔다.<sup>63)</sup> 그렇게 보면, 케티브의 1인칭 복수가 더 적합하다. 그러나 이 구절을 현재 장 구분대로 4장과 독립된 구절로 본다면, 3인칭 복수가 적합하며, 케레는 본문을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2) 7와 6: 여호수아 15:47 הַגְּדוֹלָה / הַגְּבוּל Q/ἡ μεγάλη LXX(=Q)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들과 경계를 나열하는 가운데 있는 이 본문의 케티브는 곧바로 이어지는 낱말의 영향을 받은 중복오사의 필사 오류였음이 틀림없어 보인다(הַגְּבוּל וְהַגְּבוּל K/הַגְּדוֹלָה Q; ‘그리고 큰 바다와 경계’).

(3) 7와 6: 에스겔 3:15 וְאֵשֶׁר K/τῶν Q/LXX(=K)

에스겔이 포로지인 바벨론의 델아빍에 가서 포로민들을 만나는 장면이다. 케티브나 케레 본문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sup>64)</sup> 케티브는 설명적 용법의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면서 바로 앞의 문장을 설명해 준다.<sup>65)</sup> 칠십인역도 히브리어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번역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케티브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וְאֵשֶׁר הָמָּה יוֹשְׁבֵי שָׁם / τῶν ὄντας ἐκεῖ;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반면에 케레는 이 문장을 이어지는 문장(וְאֵשֶׁב שָׁם שְׁבַע עָתָּה יָמִים;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레 동안 지냈다’)과 연결하게 해 준다. 어느 전통이 원래의 것인지는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두 전통은 서로 다른 구문 이해를 보여 주며, 추측건대 공존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4) 7와 6: 사무엘상 4:13 וְ K/τῆ Q/παρὰ LXX(=Q)<sup>66)</sup>

본문은 엘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기다리며 앉아 있던 자리를 언급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케레에 따르면, 엘리는 ‘길 가’(וְהָיָה)에 앉아서 ‘지켜보고’(מִצְפָּה=MT) 있었거나, 시각장애인이어서 ‘미스바(מִצְפָּה)로 향하는 길 가’(67)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때리다’라는 뜻의 동사 נָכָה의 히필

63) 참조, Trent C. Butler, *Joshua 1-12*, 2nd ed., WBC 7A (Grand Rapids: Zondervan, 2014), 283-289.

64) 참조, 본문의 여러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W. Zimmerli, *Ezekiel 1-24*, 2. Aufl., BK XI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13.

65) GK §154a, 각주 1.

66) 이 보기는 필자가 다음의 책에서도 언급하였다.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96.

67) 참조, P. K. McCarter, *I Samuel*, AYB 8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111.

지시형을 쓰는 케티브는 사실상 뜻을 파악할 수 없어서, 필사 오류로 여겨진다.<sup>68)</sup> 칠십인역은 *παρὰ τὴν πύλην σκοπεύων τὴν ὁδόν*(성문 옆에서 길을 지켜보면서)로 또 다른 본문 전통을 전제한다(*הַרְרָה הַמְצַפֶּה אֶת הַדֶּרֶךְ*).<sup>69)</sup>

(5) 1과 2: 에스겔 25:7 לִבְנֵי קִיָּץ Q/εἰς διαρπαγὴν LXX(=Q)

케티브는 ‘노략물’을 뜻하는 케레의 *קִיָּץ*에 대한 필사 오류이며, 이는 같은 뜻의 칠십인역 대응어 *διαρπαγή*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 3. 나가는 말

우리가 위에서, 자음 중복과 중자 탈락, 유사한 자음의 차이에서 비롯한 케티브/케레 전통의 차이 가운데, 칠십인역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 다른 용례는 모두 37개였다. 이 용례들에서 칠십인역이 어느 전통을 지지하는지를 정리해 보면,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지지하는 경우는 15번이었고, 케레를 지지하는 경우는 21번이었다. 이 가운데 케티브가 명백한 필사오류인 경우는 11번이며, 이때, 열왕기하 7:13과 예레미야 31:40(LXX 38:40), 그리고 시 105[104]:28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칠십인역이 모두 케레를 지지하였다. 그러니 케레가 케티브의 필사 오류를 수정한 이 8번의 용례를 빼면, 칠십인역의 케티브와 케레 지지율은 거의 동일하다. 한편, 다니엘 9:24에서는 칠십인역이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칠십인역과 견주어 본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필자가 사무엘 하의 범위에서 수행하였던 선행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케레 가운데는 명백히 케티브의 필사 오류를 수정한 것들이 있다(흥미롭게도 때로는 케레의 필사 오류도 있다). 몇몇 케레는 중세 시대에 비롯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형들은 초기 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하여 케티브/케레 전통은 이 시대 히브리어 본문의 다층성을 입증해준다. 몇몇 케레는 잘못 필사된 케티브에 대한 수정 제안이지만, 많은 경우에 케티브와 케레 모두가 제각각 의미가 있어서, 서로 다른 본문 형태를 반영한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케티브와 케레 본문의 고대성은 칠십인역 본문과

68) 이 용례에 대한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W. Dietrich, *Samuel*, BK VIII/1<sub>3</sub>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6), 201을 보라.

69) 참조, H. J.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3), 134.

전주는 것으로 입증된다. 칠십인역은 더러는 케티브를, 더러는 케레를 지지하는데, 여기서 칠십인역이 어느 전통을 따르는지에 대한 원칙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 번역자는 자신에게 전해진 본문 형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한 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칠십인역은 초기 유대주의 시대에 현존했던 케티브와 케레 전통과 그 히브리어 본문의 다층성과 유동성을 입증해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주제어>(Keywords)

본문비평, 성경 본문의 다층성, 초기 마소라 전통, 케티브/케레 전통, 칠십인역.

Textual Criticism, Multiplicity of the biblical Text, Proto-Masoretic Tradition, Ketib/Qere Tradition, Septuagint.

(투고 일자: 2018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8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9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바우어, 발터, 외, 『바우어 헬라어 사전. 신약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헬라어-한국어 사전』, 이정의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7.
- 안근조, “욥기 30:22하반절 ‘크티브’/‘크레’의 선택과 문학적-수사학적 번역”, 『성경원문연구』 40 (2017), 52-70.
- 켈리, 페이지 H., 외, 『히브리어 성서(BHS)의 마소라 해설』, 강성열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 크로이처, 지크프리트 외,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Allen, L. C.,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8.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
- Butler, Trent C., *Joshua 1-12*, 2nd ed., WBC 7A, Grand Rapids: Zondervan, 2014.
- Clines, David J. A., *Job 21-37*, WBC 18A,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Cogan, M. and Tadmor, H., *II Kings*, AYB 11,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Dietrich, W., *Samuel*, BK VIII/1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6.
- Fernández-Marcos, N. and Busto-Saiz, J.,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Madrid: Instituto de Filología. C.S.I.C., 1989.
- Fischer, A. A.,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 Fox, Michael V., *Proverbs 10-31*, AYB 18B,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Gesenius, W., bearb. von E. Kautsch, *Hebräische Grammatik*, 28. Aufl., Hildesheim; Zürich; New York: Georg Olms, 1995.
-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 Heidelberg: Springer, 2013.
- Ginsburg, C. D., *Introduction to the Massoretico-Critical Edition of the Hebrew Bible*,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897; repr.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66.
- Gordis, R.,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A Study of the Kethib-Qere*, 2nd ed.,

-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1.
- Hatch, E. and Redpath, H. A.,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Including the Apocryphal Book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 Hobbs, T. R., *2 Kings*, WBC 13, Waco: Word Books, 1985.
- Karrer, M. and Kraus, W.,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zum griechischen Alten Testament. Bd. II. Psalmen bis Dani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Kim, Jong-Hoon,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2.Samuel", *ZAW* 123 (2011), 27-46.
- Lundbom, Jack R., *Jeremiah 21-36*, AB 21B, New York: Doubleday, 2004.
- McCarter, P. K., *I Samuel*, AYB 8,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5.
- Morrow, W. S., "Kethib and Qere", *ABD* IV, 24-30.
- Orlinsky, H. M., "The Origin of the Kethib-Qere System", G. W. Anderson, et al., eds., *Congress Volume Oxford 1959*, VT.S 7, Leiden: Brill, 1960, 184-192.
- Stoebe, H. J., *Das erste Buch Samuelis*, KAT VIII/1,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73.
- Tov, E.,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Ulrich, Eugene,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Transcriptions and Textual Variants. Vol 2: Isaiah-Twelve Minor Prophets*, Leiden; Boston: Brill, 2013.
- Waltke, B.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eil, G. E., "Qere-Kethibh", *IDBS*, 721-723.
- Yeivin, I., *Introduction to the Tiberian Masorah*, Atlanta: Scholars Press, 1980.
- Zimmerli, W., *Ezechiel 1-24*, 2. Aufl., BK XI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 Zimmerli, W., *Ezechiel 25-48*, BKAT 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Abstract>

**Die textkritische Bedeutung der *Ketib/Qere*-Tradition  
und deren Beziehung zur Septuaginta  
in Bezug auf Dittographie, Haplographie und graphische Ähnlichkeiten**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Die *Ketib/Qere*-Tradition ist eine auf das 2. Jhr. n. Chr. zurückgehende protomasoretische Texttradition. Ihre textkritische Bedeutung ist jedoch umstritten, weil sie nur in den mittelalterlichen Handschriften vorhanden ist. Bei den verschiedenen Diskussionen handelt es sich darum, ob die *Qere*-Tradition für ein Korrekturvorschlag des Schreibers ist, ob sie die Kollation eines älteren Textes repräsentiert, oder ob sie eine Kombination von beidem ist.

Meiner Meinung nach spielt aber die *Ketib/Qere* Tradition eine wichtige Rolle zur Erklär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n verschiedenen Textformen der Septuaginta und des Qumrantextes und kann sie auch zum Erweis der Mehrgestaltigkeit und Flexibilität der Textformen des Alten Testaments in der hellenistisch-frühjüdischen Zeit beitragen.

Beim vorliegenden Beitrag wird vor allem die 37 Fälle aufgrund der Septuaginta textkritisch besprochen, und zwar Fälle, in denen die *Ketib/Qere* Tradition wegen der Dittographie bzw. Haplographie, wegen graphischer Ähnlichkeiten voneinander abweichen. Das Resultat der Analyse ist wie folgt: in 15 Fällen stimmt die Septuaginta mit dem *Ketib* überein, demgegenüber in 21 Fällen mit dem *Qere*. In 11 Fällen stellt aber das *Ketib* ein Schreibfehler dar. Bei den Schreibfehlern des *Ketib* stimmt die Septuaginta in 8 Fällen mit dem *Qere* überein, d.h. in diesen Fällen ist die *Qere*-Tradition wirklich ein Korrekturvorschlag. Es ist aber auch interessant, dass dagegen in 2Kön 7,13, Jer 31,40 [38,40 LXX], und Ps 105[104],28 die Septuaginta mit dem *Ketib* übereinstimmt. Darüber hinaus scheint das *Qere* in 2Kön 22,5 sogar ein Schreibfehler zu sein. Interessant ist, dass in Dan 9,24, wo wir zwei unterschiedliche griechische Textformen haben, diese sowohl das *Ketib* als auch das *Qere* unterstützen.

Die vorliegende Analyse bestätigt meine Annahme. Gewiss gibt es bei den



*Qeres* Korrekturvorschläge gegenüber fehlerhaften *Ketibs* (und in interessanter Weise gibt es anscheinend auch fehlerhafte *Qeres*). Manche *Qeres* mögen erst frühmittelalterlich sein, aber in vielen Fällen gehen die Lesarten in die frühjüdische Zeit zurück und bestätigt die *Ketib/Qere* Tradition die Mehrgestaltigkeit des hebräischen Textes in dieser Zeit. Manche *Qeres* sind Korrekturen für fehlerhafte *Ketibs*, nicht selten sind aber auch sowohl *Ketib* als auch *Qere* sinnvoll und spiegeln unterschiedliche Auffassungen des Textes.

Das hohe Alter dieser Textformen wird durch die Entsprechungen in der Septuaginta bestätigt. Dabei folgt die Septuaginta teils dem *Ketib* und teils dem *Qere*. - Dabei kann man kein Prinzip dafür erkennen, welche Lesart die Septuaginta aufgreift. In manchen Fällen hatten die Übersetzer vielleicht nur eine Textform zur Verfügung, in anderen Fällen trafen sie vielleicht eine bewusste Entscheidung. Die Septuaginta bestätigt jedenfalls, dass ein Teil der *Ketib/Qere* – Tradition in die frühjüdische Zeit und auf deren mehrgestaltige hebräische Textformen zurückgeht.